



##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시인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펴낸 도종환씨

하나 묻히지 않고 피어나는 연꽃,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 푸른 하늘을 날지만 소유하는 것이라고는 나뭇가지 하나뿐인 새를 빗대어 인간이 얼마나 욕심 많고 무망한 것들을 좇는 존재인가를 말한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텅비어 가야지만 가득 차서 돌아올 수 있다는 ‘허이왕 실이귀(虛而往 實而歸)’를 늘 마음에 되새기고 있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로, 시인이자 문학운동가로 살아온 그는 지난 3년간 전교조 업무와 충북 '민예총'의 업무로 무척 바빴다.

“눈앞에 놓인 일, 내가 맡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그다지도 바쁘더군요. 글쓰는 사람에게 책읽고 글쓰는 시간이 없다보니 영혼이 황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은 주변을 정리하고 글쓰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덕분에 정갈한 에세이집에 이어 곧 시집이 선보일 예정이다. 근래 또하나의 기쁜 일은 작곡가 이건용(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씨가 그의 시에 노래를 붙인 〈혼자 사랑〉이라는 음반을 출시한 일이다. — 마정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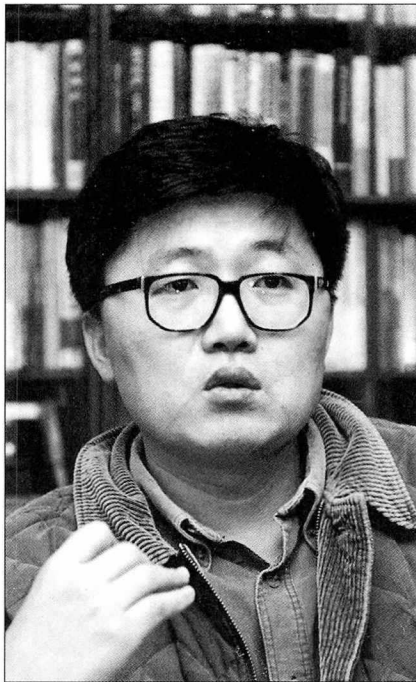
〈접시꽃 당신〉의 시인 도종환(44)씨가 4년만에 에세이집을 펴냈다.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사계절)라는 표제의 이 책은 불황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전하는 이야기들이다. 생활 주변에서 일어난 일화들, 여러 고전과 시·소설 중에 깊은 울림을 주는 54편의 글을 엮었다. 갈피갈피 깊이 있는 통찰과 삶에 대한 애정이 넘친다.

도마뱀 일화는 도쿄 올림픽 때 있었던 일. 스타디움 확장을 위해 3년된 집을 헐게 되었는데 그 안에 꼬리에 못이 박힌 채 몸부림치는 도마뱀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놀란 인부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지켜보았더니,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도마뱀이 먹이를 물어다 주더라는 것.

“그 도마뱀에게 3년은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 못 박힌 도마뱀과 동료들 위해 희생을 감내한 도마뱀은 고통의 세월을 어떻게 지냈을까? 어두운 지붕 밑에서 서로 보듬고 고통을 나누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곱씹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표제작으로 삼았지요.”

도종환 시인은 이 시대가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견해와 사랑의 온기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라고 말한다. 다리를 저는 강아지를 사는 소년 이야기처럼, 세 식구가 한 그릇의 우동을 나누어 먹으며 새해를 맞는 이야기처럼, 서로 아픔을 나누고 보듬어 내일을 살아가자는 것이다.

그는 비워야만 채울 수 있다고 말한다. 비우지 않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어디 있는냐는 것.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흙



## 담담히 비평 기다리는 평론가의 소설

《나는 천년을 산 것보다 더 많은 추억을 갖고 있다》 펴낸 박철화씨

있었다. 문학에 대한 정체성 찾기로 시작한 소설쓰기는 평론에서 견지했던 주관적 관점을 연장시키는 실험인 셈이었다.

“대학이나 유학생을 하면서 소설쓰기에 한발짝 물러서 있는 것이 항상 마음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더욱 80년대를 살아온 세대로 아직까지 사회에 대한 부채를 지고 있었지요. 어떤 식으로든 지 그것들을 삭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사회에 대한 짐을 지고 있는 세대로, 그 사회로부터 멀어졌던 유학생으로 개인과 역사, 실존과 운명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야 했다. 글쓰기의 장을 통해 이제는 떨쳐버릴 부채를 탕감하려고 했던 것이다.

“유약해 보이는 인물들도 엄연히 현존하는 사회의 구성원임을 보여주려는 실험이 제가 쓰려는 소설입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종의 인물들마다 조금씩 사회로부터 이탈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그들을 가꾸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편의 소설을 선보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평론의 길을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외롭지 않은 창작의 길을 향해 바쁜 걸음을 재촉할 뿐이다. — 오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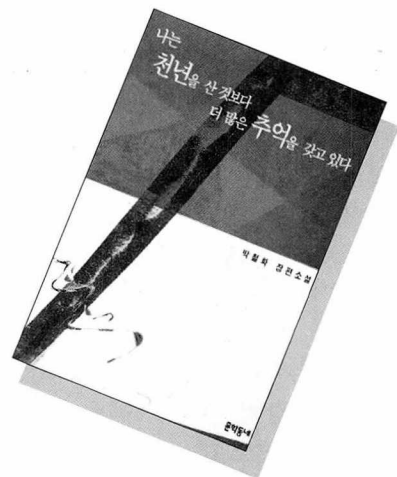
창작과 평론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온 우리 문단에서 평론가가 창작집을 펴내는 것은 모험적 실험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젊은 평론가로 활동해왔던 박철화(34)씨가 장편소설 《나는 천년을 산 것보다 더 많은 추억을 갖고 있다》(문학동네)를 펴냈다. 평론의 함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가 금지된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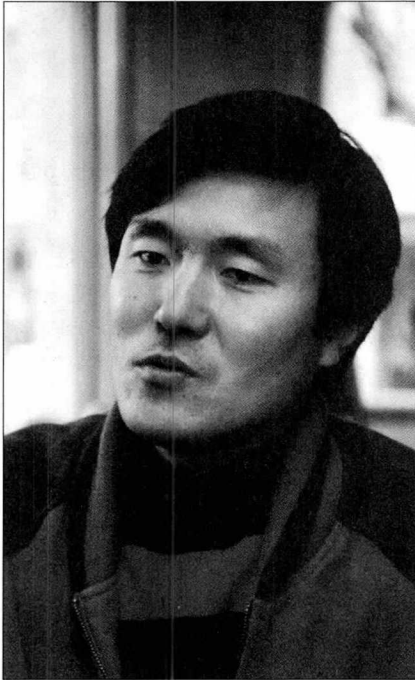
소설집을 세상에 내보낸 이상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할 입장에 선 그는 담담한 심정으로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자신의 창작물을 또다른 문학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론가는 어떤 경우든지 텍스트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문단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텍스트를 무시한 비평의 담론에 메마른 관념만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웠습니다.”

비평을 위한 비평이 난무했던 시절의 아픈 기억을 더듬으며 그는 평론가의 견해와 작가로서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드러냈다. 평론을 할 때 그는 곧잘 주관적인 관점을 드러내곤 했다. 평론가의 입장에서 주관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은 텍스트의 주인으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평론은 작가뿐만 아니라 평론가 자신의 생도 비춰보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평론가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만큼 텍스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는 생각이다.

진작부터 소설을 쓰고 싶었던 그는 문학이론을 공부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창작의 꿈을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에서 유학하며 그동안 몸담고 있던 문학적 틀을 떨쳐버리고 싶은 생각도





## 진보와 개혁의 정신으로 본 조선역사

《사화로 보는 조선역사》 펴낸  
이덕일씨

그 빛깔이 아름다워 누구나 현혹되지만, 독성을 품고 있어 막상 먹으면 신경조직을 파괴하는 야생 독버섯. 정치권력은 그 독버섯을 닮았다.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권력의 속성은 독버섯처럼 치명적인 중독성을 간직하고 있다. 역사상 무수한 목숨들이 권력의지의 칼날 아래 피를 토하고 쓰러져갔다. 특히 조선시대 사회(士禍)와 당쟁(黨爭)은 그 대표명사였다.

‘음모’와 ‘사약’, ‘궁중암투’ 등 음습한 언어의 감옥에 유폐되어 있는 조선시대의 사회는 사악한 권력의지의 상징일 뿐인가. 텔레비전 사극(史劇)식의 역사적 상상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다. 그러나 역사라는 엄정한 기록의 세례를 받은 눈 밝은 역사학자에게 진실은 다른 곳에 있다. 《사화로 보는 조선역사》(석필)를 펴낸 이덕일씨(37)는 일반인들의 왜곡된 역사 의식에 도전한다.

“우리가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된 것은 일제의 식민사학 때문입니다. 조선은 사회와 당쟁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 일제가 조선 역사를 바라보는 기본관점이었습니다.”

이미 《당쟁으로 보는 조선역사》(석필)를 펴낸 그는 오는 신학기에 숭실대에서 <동북 항일연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는다.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그가 당쟁과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일반인들에게 가장 부정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역사의 허상을 깨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사회는 부패한 여당 훈구파가 개혁성향의 야당 사림파에게 가한 정치보복입니다. 그러나 사림파의 입장에서 보면, 부패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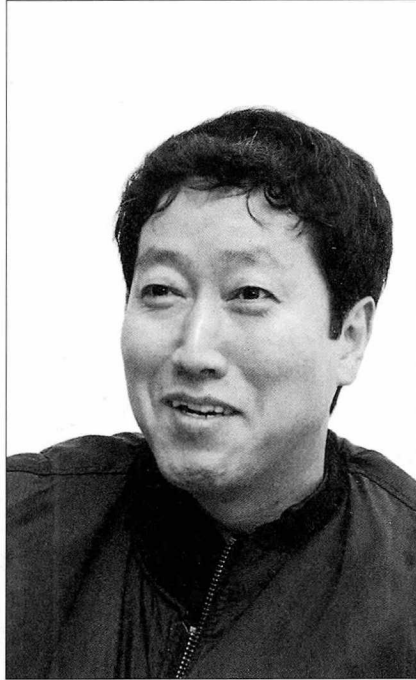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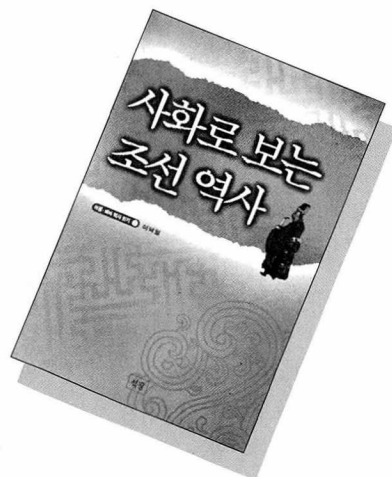
특권보수층에 대한 상대적 진보세력의 수난의 역사이자 승리의 역사입니다.”

고려말 신흥 사대부층의 등장부터 선조대에 사림파가 집권하기까지 다룬 이 책은, 조선중기 사림파가 훈구파를 몰리치고 정권을 장악했던 것은 역사의 진보이자 또 다른 시작이었다는 일관된 관점에서 서 있다.

대중역사서의 상업주의화를 경계하는 그는 “역사가는 뚜렷한 사관에 입각해서 서술할 때 흥미 이전에 다양한 역사상을 포착할 수 있다”며, “역사현상을 그 시대의 사회체제와 연관시켜 파악하는 인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강단에 갇힌 역사학자보다는 역사평론가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실증에만 집착하고 현실발언에 소극적이었던 강단 역사학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시대의 언어로 역사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에 펴낸 역사에서 《송시열의 나라》를 출간한다. 노론의 대학자 우암 송시열의 삶과 사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한 책이다. 또한 건국 50주년을 맞이해 ‘기슴으로 보는 민족운동사’도 구상중이다. 사료와 사료 사이의 팽팽한 지적 긴장에서 길어올린 새로운 역사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 박천홍 기자



## 직관과 상상력으로 뜯어본 중국

《나는 지금도 그 악어가 그림다》 펴낸  
박인식씨

힘을 되새긴다.

“중국에 갈 때마다 미래의 세계는 중국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곤 합니다.”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동양사상을 주도해온 사상의 종주국으로서의 저력에, ‘인간다운 삶’을 아는 듯한 중국인들의 즐겁고 밝은 표정이 더욱 확신을 준다.

그는 얼마전 한 선배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다. 선배는 발해탐사대원이었다. IMF가 터지고 무모하다는 여론에도 대조영의 기상을 생각하며 바다 위에 한 척 뗏목을 띄운 그들을 박인식씨는 결코 어리석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영원이나 불가능, 무한한 것에 대한 도전욕구는 인간다운 것이기 때문이다.

“출발 당시 가족이 있는 파리에 있지 않았다면 저도 그 뗏목을 탔을 겁니다.”

연세대 재학시절부터 산악부원으로 활동. 월간 《산》 기사를 거쳐 《사람과 산》의 발행인 겸 편집인의 경력을 지녔지만 지금 그는 산과 대륙을 찾아다니는 떠돌이이다. 서울에 온지 한달도 되지 않았는데, 박인식씨는 다시 중국으로 떠난다. 이번에는 압록강과 두만강, 백두산을 따라가 볼 생각이다. 북한 가까이에서 그들을 느끼면 통일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다. — 이현주 기자



박인식씨(48, 소설가)는 5년 전 곤륜산맥에서 기이한 체험을 했다. 몇 시간만에 증편소설을 하나 써내는 신내림 같은 체험, 내용을 저장해둔 노트북과 함께 남김없이 잃어버린 소설에 대한 기억이 그것이다. 이미 사라져버린 소설을 되찾기 위해 중국을 다시 찾은 그는 중국의 마력에 빠져버렸다. 그 힘이 두번째 여행을 끝낸지 1년도 채 안돼서 다시 중국으로 향하게 했다. 이 7개월 동안의 중국 방랑이 《나는 지금도 그 악어가 그림다》(문예마당)이다.

“중국은 너무 넓고 다양해서 본질에 다가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이해하는 데는 직관과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직관과 상상력으로 본 중국은 ‘엄청난 소화력을 가진 삼겹살로 만들어진 위장’ 같은 곳이다. 무엇이든 자국 안에 들어온 것은 중국화해버리기 때문이다. 변방 이민족의 침입을 그토록 받아왔지만 중국은 블랙홀처럼 그들을 자신의 문화 자장 안으로 빨아들였다. 그래서 중국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중국 변방에서다. 연변의 조선족들은 중국을 거침없이 ‘우리나라’라고 부른다.

“이 책은 중국 여행기이지만 중국을 여행하는 동안 마주친 것들을 제 나름의 시각으로 뜯어본 자유분방한 에세이입니다.”

선착순도 아닌데 탈 것만 보면 무조건 전력질주하는 중국인들을 보며 그는 튼튼한 두 다리를 믿는 중국인들의 정신을 보았고, 사람고기까지 즐겼던 탐식에서 먹는 일을 삶으로 승격시킨 그들의 여유를 느꼈다. 전족의 팔등신 중국여인을 보면서 만리장성은 저 여인들을 지키기 위한 대역사라고 생각하며 중국의 불가사의한